



진정한 행복이란

전문가란 장인정신이 몸에 밴 사람들이다. 그들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로 인하여 매일 매일이 행복하다.

한 가지 일을 제대로 끝까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 이들은 공통된 특성이 있다. 한 가지 일을 시작하면 곧 그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허접한 이유를 대고 중간에 포기한다. 그들은 자유분방한 성격으로 인생을 즐기며 살려는 경향이 있어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에 지루함과 우울함을 느낀다. 그들은 '지독하게도 재수가 없어서 지금이 고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결국 한 가지 일에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생의 목표는 그저 돈 쓰면서 친구나 가족들과 어울려 노는 것이다. 오직 그 순간만을 위해서 일을 하고 공부를 하는 것이다.

한 가지 일을 계속적으로 그리고 민명나게 끝까지 도모하기 위해서는 생각을 바꿔야 한다. 어떤 일이라도 꾸준히 연구하면 못해 낼 것이 없다는 것이 만고의 진리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형벌처럼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자신의 적성에 맞지 않다고 덮어놓고 외면하려고 하면 안 된다. 대충 설명설명하면 이 세상에 재미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현재하고 있는 일이 아무리 하찮은 일이라도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지금 당신은 자신이 하는 일에 얼마나 집중하고 연구하고 있는가. 이것이 행복을 좌우한다.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 전문가와 비전문가이다. 전문가란 장인정신이 몸에 배인 사람들이다. 그들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로 인하여 매일 매일이 행복하다. 하지만 매일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요행만을 바라다면 결국 재미없는 비전문가 인생으로 살아가야 할 것이다. 비전문가 인생을 살면 몸도 지치고 마음도 피곤해진다. 늘 감정의 골에 갇혀서 환경 탓, 사람 탓만 하게 된다. 매일 일어나는 작은 사건 속에 휘말리게 되며 항상 돈에 쫓돌리면서 살아가게 된다. 이제는 그 굴레를 벗어나야 한다. 감정적 무질서 속에서

그저 남만 부러워하며 살기에는 시간이 너무 아깝다. 한 가지 일에 집중해야 한다. 한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지금 가장 소중한 일에 시간을 부여하고 하루 종일 연구하고 고민해 보자. 행복이란 무엇인가. 자신의 능력을 돈을 더 벌기 위한 수단으로 팔아먹으면 행복은 무조건 돈과 관련된 그 무엇이라고 인식되기 시작한다. 가벼운 생각을 버려야 진정한 삶의 행복이 보인다.

이제까지 모든 일이 안 풀리고 엉망진창인 삶을 살아왔다면 그 삶에 중지부를 찍자. 감정 상태를 벗어나 결정한 자세로 공부해야 한다. 공부란 자기수련이다. 자기수련이 없으면 결단과 행복도 없다. 이 원리는 일종의 충전 배터리와 같은 원리다. 자기 노력을 해주지 않으면 내 마음속 행복 배터리는 방전되어 버린다.

시간이 없다고 핑계대지 마라. 아무리 바빠도 자투리 시간을 모으면 하루에 2시간의 자기 계발 시간을 만들 수가 있다. 공부해야 한다. 노력해야 한다. 그저 놀면서 쉬면서 웃고 떠들고 계획 없이 살면서 자신의 삶을 허비하고 싶은가! 무질서는 감정상태일 뿐 행복이 아니다. 무질서가 행복감을 준다는 믿음을 버려야 한 가지 일에 집중할 수 있다.

고작 돈 몇 푼 더 벌려고 지금하고 있는 일을 해야 한다면 그 목표부터 바꿔야 한다. 나만 고생하는 것 같은 느낌 때문에 하던 일을 멈추고 길거리를 방황해 봐도 행복은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진정한 행복이란 오직 한 가지 일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집요하게 연구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은근한 대화 향기 같은 것이라는 점을 꼭 인식해야 한다.*

수녀의 요가 교실

내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요가

여자들의 취미로만 여겨져 오던 요가가 달라지고 있다. 세계적인 스포츠 남자 선수들 사이에 요가 마니아들이 많아졌다. 근육질 몸에 부족한 유연성을 늘려서 부상위험을 막고 그에 따라 선수 생명도 오래가기 때문이다. 백세 시대를 지나 영생의 세계가 펼쳐지고 있는 2015년! 나이 들면 피할 수 없는 근력 감소를 꾸준한 요가로써 다가오는 영생시대를 명품 몸매와 함께 준비해 보자!

근육을 유연하게, 고관절을 바로잡아 부드럽게 하므로 퇴행성관절염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준다.

팁: 집중하여 정성을 다하면 몸에 힘이 풀린다. 작은 동작 같지만 효과는 크다.

주의: 허리를 바르게 세운다. 가슴을 활짝 열어준다. 어깨는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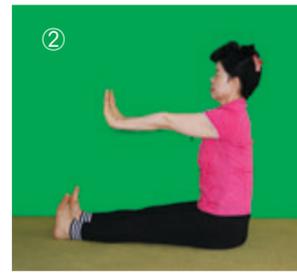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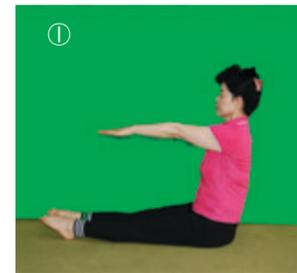
동작①: 앉아서 팔 다리를 쭉 펴서 손끝 무릎 발뒤꿈치를 늘린다. 15초 유지, 5회.

동작②: ①번과 같은 자세로 손끝 발끝을 몸 쪽으로 당긴다. 15초 유지, 5회.

회.

동작③: 한쪽 다리 허벅지를 양손으로 감싸 숨을 내쉬면서 천천히 가슴 쪽으로 당긴다. 15초 유지, 양쪽 각3회.

동작④: 한쪽 다리를 접어 반대쪽 허벅지 위에 놓고 숨을 내쉬며 손바닥으로 천천히 바닥으로 밀어낸다. 15초 유지, 양쪽 각 3회*



도덕경 해설



上士聞道 勤而行之

상사문도 근이행지

훌륭한 사람이 도를 들으면 부지런히 닦아 행할 것이오

도덕경 41장 해설

세상 혼란 말로 각계각층이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식물, 동물, 인간의 군상 모두에게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인간에게 무슨 계층 따위가 있을까 할 것이다. 하지만 곰곰이 인간의 삶을 들여다보면 이내 납득이 가리라 여겨진다. 예를 들어 '훌륭한 성인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를 대하는 사람의 반응은 천대만상이지만 확연히 구분지어 살펴볼라치면 인간의 생각 판단 행동의 양태를 크게 3가지로 압축한 계층으로 나뉘어서 논할 수 있다.

첫째,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이를 배워서 자신 삶의 지도로 노력하는 사람. **둘째,** 그 순간 말 씀

을 듣고서 감흥에 겨워하나 이내 잊어버리는 사람. **셋째,**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그것도 모자라서 우습게 여기고 깔보는 태도를 보이는 사람.

한 사회의 평온한 삶과 행복한 삶을 유지하는 도덕과 윤리가 제대로 있느냐 없느냐 하는 척도가 위의 세 부류 중에 어떠한 부류의 사람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다.

노자는 앞으로 다가올 미래 세계에서 도라는 것이 거의 흔적도 없이 사라질 위기에 빠진 시대적 상황이 전개될 것인데, 그때도 만약 참 도가 출현했다고 한다면 과연 세인들의 반응은 어떠할까 굉장히 우려스러웠을 것이다. 이런 우려했던 세대가 연출되지 않기를 노자는 진심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 글을 남겼을 것이다.

도덕경을 대하는 우리가 그 당시 노자가 '우려했던 그 시대가 오늘이라는 시절'에서 읽어 주면 좋겠다. 과연 세상 사람들이 이 도를

듣고서 두 손을 들고 기뻐하며 환영할까, 아니면 그냥 무덤덤할까, 그것도 아니면 비웃고 조롱하고 박해하며 사도(師道)라 하여 없애려 할까?

아마 노자가 살았던 어둡고 혼미한 시대도 노자가 전하는 이 도를 세인들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여 - 물론 지금도 이미 세상에 인생이 걸려야 할 참 도가 출현하였다고 대대적으로 알리고 있지만 - 시대가 다르고 사람이 다르지만 - 안타깝게도 오늘날 사람들 또한 과거와 똑같은 시대적 연출을 하며 과오(過誤)를 저지르지 않고 있나 생각해 보게 한다.

지금쯤 당하여, 우리 앞에 마땅히 사람으로서 걸어야 할 정도(正道)의 길이 나왔다고 세상에 널리 선언하고 있다. 정도는 인간 삶의 총체적 문제와 불행의 해결해 주는 해법이다. 마침내 이 세상에 괴롭고 고통과 슬픔이 없는 그 선하고 아름다운 정도의 길을 안내하고 있다. 정도의 길이 우리 인간에게 얼마나 유익하고 가치 있는 것이라 깨닫는다면 어서 빨리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서라도 이 도를 찾고 만나서 거이코 감동과 희열을 맛보아야 할 것이다.

上士聞道 勤而行之(상사문도 근이행지): 훌륭한 사람이 도를 들으면 부지런히 닦아 행할 것이오

中士聞道 若存若亡(중사문도 약존약망): 보통 사람이 도를 들으면 들을 때뿐 이내 잊어버릴 것이오

下士聞道 大笑之(하사문도 대소지): 천박한 사람이 들으면 크게 비웃을 것이다

不笑不足以爲道(불소불족이위도): 사람이 비웃지 않는다면 행할 도로서 부족하기 때문이리

도(道)란 우주만물과 인간이 존재하기 이전의 빛의 세계(천국, 극락정토, 이상향, 궁극적 실재)를 말한다. 우리가 도를 회복하여야 하는 근본적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 세계는 시공을 초월하여 영원한 생명과 희락을 끝없이 누리는 우리들의 본향이기 때문이다.*

허만욱 승사 칼럼

길ियो 진리요 생명의 주인공은 이기자 정도령이다

정도령은 이 세상의 비정상적인 모든 폐습(弊習)과 폐풍(弊風)은 물론 학문과 종교 등의 근본적인 오류를 뿌리부터 파헤쳐서 바로잡는다. 동시에 인간의 조상을 밝히고 또한 사망의 원인과 영생의 묘법(妙法)을 적나라하게 천명하시고 심지어는 인간은 물론 이 세상의 만물이 모두 신이라는 이해하기 어려운 선언까지 서슴치 안으신다. 이 세상의 참 모습을 소상하게 파악하고 계시는 점으로 보아 틀림없는 하나님의 신이요 진리의 본체이다. 하나님은 만물의 생명이요 생명의 근원은 마음에 있으므로 승리자계선 인간의 일상생활의 모습과 그 마음의 움직임까지도 마치 거울을 보듯 훤히 투시하시니 이분이야말로 생명의 원천이 아닐 수 없다.

승리자는 신천신지(新天新地)의 개척자로 구세진인인데 성경상으로는 부활자요 순교자요 종생자요 온전자요 완성자요 중성(中性)의 회복자요 성령으로 거듭난 자요 전지전능자요 생명과일을 먹은 자이다. 불경상으로는 생미륵불이요 만년(萬年)을 극복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완성하신 극기승자(克己勝者)요 구세주이시다. 사람 같으나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출현하셨는데(似人非人天神降), 마귀 육에 갇힌 하나님들은 눈을 뜨고도 못 보고 있으니 애저름기 한이 없다. 종교란 진리구현과 원시반본(原始返本)을 뜻하는데 성경에

는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벗고 하나님으로 거듭나게 하는 비법이 숨겨져 있다. 즉 나를 항상 버려라. 성령으로 거듭나라, 하나님 안에서 행하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라와 같이 하나님의 되어야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 담겨져 있는데, 이 세상 종교들은 전혀 이것을 모르고 있으니 그것들은 종교가 아니라 지 서슴치 안으신다. 이 세상의 참 모습을 소상하게 파악하고 계시는 점으로 보아 틀림없는 하나님의 신이요 진리의 본체이다. 하나님은 만물의 생명이요 생명의 근원은 마음에 있으므로 승리자계선 인간의 일상생활의 모습과 그 마음의 움직임까지도 마치 거울을 보듯 훤히 투시하시니 이분이야말로 생명의 원천이 아닐 수 없다.

阿彌陀佛 佛道人(아미타불 불도인)들 八萬經勞 工夫(팔만경권 공부)하야 極樂(극락)간다 말은하나가난같이 稀微(희미)하고, 석가 믿는 불교인들 불경 몇권 공부하여 극락 간다 말을 하나 가는 길이 희미하고, 西學入道 天堂人(서학입도 천당인)들 天堂(천당)말은 참조으나 九萬長天(구만장천) 말고며니 一平生(일평생)엔 다 못 가고, 기독교에 입도하여 천당 간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 텅 빈 하늘 천당없고 믿어봤자 허깨비세, 천당인지 극락인지 차별만 다 못하고 평생수도 십년 공부 나무아미타불일세.

지금 이 순간에도 영적인 성령의 대권좌에서 온 우주를 향하여 감로이슬을 한없이 분출하시며 신천신지의 대역사를 감행하고 계시는 희대미문(稀代未聞)의 승리자 정도령이시여, 영원무궁하소서.*

승리신문

1990. 3.3 등록번호 다 - 0029

발행인 겸 편집인 김중만

본지는 구세주(정도령, 미륵불)께서 말씀하신 사람들이 실제로 죽지않는 원리(영생학)를 누구든지 쉽게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소개하여 질병과 죽음의 없는 개벽된 세상을 만들고 진정한 평화의 세계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발행됩니다.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안곡로 205번길 37
우 422-826
홈페이지 www.victor.or.kr



광고 및 구독신청
전화 032) 343-9985
FAX 032) 349-0202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전국제단 및 해외제단 연락처

역곡제단 : (032)343-9981-2	부산제단 : (051)863-6307	마산제단 : (055)241-1161	사천제단 : (055)833-7866	광주제단 : (062)524-4555	神戸祭壇 : (078)862-9522	神奈川祭壇 : (045)451-3150	London : (0208)894-1075
수원제단 : (031)236-8465	영도제단 : (010)6692-7582	진주제단 : (055)745-9228	포항제단 : (054)292-5455	대전제단 : (042)522-1560	下關祭壇 : (0832)32-1988	Philadelphia : (215)722-2902	
안성제단 : (031) 673-4635	김해제단 : (055)327-2072	울산제단 : (052)291-1849	순천제단 : (061)744-8007	청주제단 : (043)233-6146	久留米祭壇 : (0942)21-4669		
평택제단 : (031)652-6438	충주제단 : 010-9980-5805	진해제단 : (063)533-7125	순음제단 : (063)853-6673	금마제단 : (063)853-6673	岐阜祭壇 : (0584)32-1350		
이족제단 : (031)672-6786	대구제단 : (053)474-7900	영천제단 : (054)333-7121	군산제단 : (063)461-3491	橫濱祭壇 : (045)261-6338	大阪祭壇 : (06)6451-3914		

원래 사람은 하나님이었습니다